

JCE7 프로그램국장 나카니시 마사히로

제 7 회 일본전도회의의 주제가, 6 월 7 일(화)과 8 일(수)에 열린 일본복음동맹(JEA)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. 이 주제는, JCE7 개최지 위원회, JEA 이사회, JEA 각 전문 위원회, 각 교단 교파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오며, 반년에 걸쳐 JCE7 프로그램국에서 다듬어온 것입니다.

전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은, 일본의 각 교회에도 컸습니다. 그동안 JEA 선교포럼 2020 과 선교연구부문이 각 교회에 부탁드렸던 코로나 대책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, 각 교단 교파의 대표자 회의와 선교연구부문 담당자 회의 등에서 받은 의견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

JEA 총회의 프로그램 중에 받았던 질문 등에,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했습니다.

제 7 회 일본전도회의(JCE7) 주제의 취지 설명 프로그램국

“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
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”

이사야서 43 장 19 절

“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
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
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
있도다 하니”

요한계시록 7 장 9-10 절

이 돌구절은 종말에 관련된 성경말씀입니다.

지금까지 6 회에 걸쳐 개최되어온 일본전도회의는, 성경을 ‘믿음과 생활의 유일한
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’이라고 믿는 복음적인 교회가, 주 예수 그리스도의
자상선교명령에 서로 힘을 모아 순종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.
그리고 JCE7 은, 지난 JCE6 에서 제시된 ‘Revision 과-바뀔’을 구축하는 7 년간의
준비기간을 가지고, 일본 선교의 방향성을 새롭게 세울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
되었습니다.

그러나 2019 년 말부터 코로나 문제로 타격을 입은 사회의 생활환경과 양식은
급변하고, 기독교 또한 교회의 현상태와 선교 정책을 포함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

질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~~어떻게 보면~~ 어떤 의미에 'Revision 리-비전'보다는 오히려 '리셋-Reset'이라는 말을 의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.

코로나 문제로 영향을 받아, 교회의 각 집회 및 활동 현황이 어려워진 가운데,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 서서 다시 돌아보도록 많은 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인식에서 '리셋-Reset'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였습니다.

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,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섭리적인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이며,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,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앞드려, 하나님께 여쭙고, 위로부터의 방향성을 배워야 할 중요한 시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JCE7의 주제는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사역을 평가하면서도, 하나님에 의한 전혀 새로운 가능성,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(발상법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, 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)을 ~~남겨~~ 이 생성되기를 기대하며, 프로그램국으로서 다음의 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.

“마지막”에서부터 “시작하는” 선교협력